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89. 짐승과 일곱 머리

2014. 09. 14.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7장의 일곱 머리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뿔과 그들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애청자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문인정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213-905-3641입니다.

[계17:12,13]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13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열 뿔이 왕관을 쓰지 않은 상태로 계시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풀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답: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난 시간에 17장 내용의 배경이 14장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기억하시지요? 19장까지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 뿔이 요한이 계시를 보는 그 시점에서 보면 아직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열 나라로 분열되기 전이었지요. 그러나 예언의 안목으로 로마는 열 나라로 분열되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열 뿔에 왕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장의 장면이 심판의 장면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를 기점으로 볼 때에도 왕관이 없는 상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13장에는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맹수를 조합한 상태로 보여주셨고 그것 자체가 교권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17장에는 그런 국가적 특성을 벗어나서 스스로의 색깔을 완전히 갖춘 교권국가로 성숙했으면서도 성경상 교회를 가장 확실하게 상징하는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기에 교회와 국가가 각각으로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1절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한 그 예언 중에서 있었다가 없다가 올라온 그 때의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중세 때처럼 교회가 국가들을 지배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때에 열 뿔은 왕관을 벗은 나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17:12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짐승으로부터 임금처럼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왕이 아니지요. 왕이 전권을 행사하는 왕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한 때는 열 나라가 성립되기 전으로 보이고,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다고 한 때는 심판 때가 되었을 때에 사정입니다. 13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16장의 여섯째 재앙 때의 사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개구리 같은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계16:14)는 말씀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이 임금처럼 권세를 받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온 천하 임금들이라고 통칭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지요.(계16:16) 이제 17:14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지요.

[계17:13,14]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다.

보세요, 열 왕들이 짐승에게 자기들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열 뿔로 상징된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짐승이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여섯째 재앙 때의 일입니다. 짐승이 영들을 보내어 재앙으로 참담한 상태가 된 세상을 이적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자발적으로 짐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모으는데 14절에 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양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을 가르쳐준 것인데, 짐승의 세력이 결코 이길 수 없지요. 이때 야곱의 환난을 겪는 성도들이 어린양 편에 서서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면 아마겟돈에 모인 연합세력의 지휘자가 짐승이 한다는 말인데요, 어떤 분들이 그것을 사단 자신이라고 하던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이 열 왕들로 표현된 천하의 권세들을 이 짐승이 지휘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꽤 여러 사람들이 이 여덟째 왕을 사단 자신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여덟째는 왕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고 그냥 여덟째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곱 머리를 일곱 왕이라고 했는데 여덟째는 일곱에 속한 자이기는 해도 여덟째 머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덟째는 머리가 아니고 짐승 자체입니다. 이유는 17:8에 네가 본 짐승은 있었다가 없고 또 올라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에 여덟째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 왕이 이 짐승에게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덟째는 머리 중 하나가 아니고 일곱 머리를 달고 있는 짐승 그 자체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사단 자신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해석은 본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은 있었다가 없다가 또 올라오는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사단이라고 해석한다면 사단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없었을 때가 없지요. 태초부터 멸망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없을 때가 결코 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덟째는 짐승 자체로서 회복된 교권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섯째 재앙을 짐승의 보좌 있는데 쏘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짐승이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구리 같은 영을 보내어서 이적을 행하여 천하 임금들을 한데 모으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아마겟돈에 모이고 17:13,14에 기록한 사건이 진행되는데, 열 뿔로 표현된 왕들이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준다고 했습

니다. 만일 그것이 사단 자신이라면 열 뿔에게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그 짐승과 열 뿔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야 하지요. 13장에 용이 권세와 보자를 짐승에 준다고 했잖아요. 세성의 열 왕들이 사단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덟째를 사단으로 보는 것은 본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너무 분명하네요. 사단으로 보는 것은 성경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너무 확실합니다. 더구나 능력과 권세를 짐승으로 더불어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가 자기들이 받은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고 한 것을 보면 그 여덟째로 표현된 짐승이 결코 사단 자신일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짐승도 열 뿔과 함께 능력과 권세를 받았는데, 사단으로부터 받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확실합니다.

답: 그렇게 동의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짐승과 연합한 무리들이 어린양과 전쟁을 하지만 패배합니다. 어린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어린양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루시퍼가 대적한 분이 바로 말씀하나님입니다. 곧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던 바로 그분이지요. 루시퍼는 그분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싸움의 정점에 달하였습니다. 루시퍼를 추종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그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대드는 싸움이지요.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것으로 그분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이 증명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에 참여한다는 보증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렇게 종막을 고할 것입니다. 이것은 19장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17장을 17장의 내용으로만 풀어가려면 어렵게 여겨지는데, 이것이 14장 17~20에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계시라고 이해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시방, 장차라고 번역한 것을 시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역사적 시점에 대한 난해성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17:13,14은 분명히 아마겟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설명하면 17장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답: 그렇군요. 사실 17장은 무척 어려운 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고 장차 올라온다고 한 그 존재의 역사적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고, 또 망한 다섯 나라가 무엇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지요. 이 두 문제가 이해되면 다른 것은 13장에 이미 설명된 것을 반복하는 것이니까 쉽게 풀릴 수 있지요. 제가 설명한 것은 아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15절인데요, 이 구절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었고, 17장을 설명할 때에도 이미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는 말씀이지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그 물이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과 짐승과 산과 일곱 머리가 다 같은 사실을 상징하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여러 상징의 모습으로 소개한 것은 그 존재의 여러 얼굴과 다양한 변신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변장의 명수이니깐요. 그러나 결국은 유럽의 제국로마가 근거가 되어

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상징으로 계시하면서 그것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장본인은 바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루시퍼라는 것을 잘 가르쳐준 계시입니다.

5. 그러면 16~18절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이 구절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까?

답: 어렵지 않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밝혀야 한다고 고전 2:13에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뜻을 알도록 구해야지요. 자 16절을 읽어봅시다.

[계17:16,17]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별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음녀를 태우고 있던 짐승과 그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줬던 열 뿔이 음녀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음녀는 교리와 신조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즉 나라를 타고 조종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의 조종을 받던 나라들이 이 교회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자 반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아주 사치스러운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요. 그가 별거벗게 된다는 것은 그의 모든 부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또 성경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으로 옷을 벗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음녀가 죽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는 것은 맹수가 공격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짐승과 열 뿔로 상징된 세상 세력이 결국 맹수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은 맹수들이지요. 17절은 이 짐승과 열 뿔과 음녀의 상황이 엄청난 반전을 나타내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연합세력이 어린양과 그의 성도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음녀가 참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알았지요. 그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 바로 그 존재거든요. 그랬는데 어린양과 싸움을 벌이고 참패하지요. 그 참패란 어린양과 싸움을 벌일 때에 어린양이 그들이 교회요 하나님의 대리자인줄 안 그것이 바로 사단의 앞잡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연합세력이 나타내는 반응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내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 17절입니다. 이렇게 자중지란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16장에 일곱째 재앙의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16장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선지자가 분열될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여자와 짐승이 분열됩니다. 아마 나중에는 짐승과 머리들이 서로 싸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표현은 이 세력이 분열되어 자중지란을 일으켜서 먼저는 여자가 망하고 다음은 짐승과 뿔들이 망할 것입니다. 큰 성은 바로 음녀의 이마에 적힌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16장의 일곱째 재앙 때에 있을 일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16,17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18장에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 그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는 말씀은 무

슨 뜻입니까?

답: 이미 16장 여섯째 재앙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 이해가 될 만큼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 되는데요, 열 뿔이 어린양과 싸우는데 모든 힘을 짐승에게 실어주는 사실에서 그것이 반전해서 또 연합해서 여자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결과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짓을 제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내버려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양을 공격하는데, 이때 여자의 정체가 폭로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음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자 그들이 속아온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양을 공격하지 않고 음녀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자중지난을 일으켜 서로 공격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7. 그때 여자의 정체가 폭로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그것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 그렇게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금년에 계시록을 다 끝내야 하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면 금년에 22장까지 마칠 수 있을는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몇 차례 말한 것 같은데, 16장부터 19장까지는 14장 17~20절까지 함축적으로 말한 심판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계시라고 했지요. 14:17~20 포도주 틀을 밟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15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14장에서 보여준 장면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짐승과 그의 연합 세력들이 어린양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할 때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17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1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17장 장면이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며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양을 대적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14절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어린양에게 패배하는데 물론 실제적인 전쟁으로 패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 중심입니다. 어린양은 이들의 죄상을 선포하는 것을 하지요. 시편 50편을 볼까요? 이 시편은 이때의 장면을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50:3~6]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4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5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6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6절에 하늘이 공의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양 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짐승 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짐승의 연합세력은 비로소 음녀의 최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편 50편 구절을 더 읽어봅시다.

[시50:14~23]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6 악인에게는 하나

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올레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17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18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19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궤사를 지으며 20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1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데도다 22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14절과 23절은 의인에 대하여 하는 선언이고 15절에서 22절은 악인에 대하여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계17장에서 짐승의 연합세력이 어린양을 공격하는 절정의 순간에 하늘이 공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때 짐승과 연합세력이 음녀의 속이는 최면에서 깨어나서 음녀를 공격하고 음녀의 앞잡이노릇을 한 지도자들을 공격하면 자중지난이 일어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던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사건은 1천년 후에 일어난다고 20장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또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8. 그러니까 14장의 끝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16장 이하의 계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군요. 그 사실을 놓치고 17장 자체만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참 어렵겠습니다.(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7장은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18장으로 넘어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답: 예, 18장으로 가야할 시간인데 18장을 시작하다가 오늘 시간이 끝나겠네요. 17장이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의 역사적 국가적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18장은 이 음녀로 상징된 존재와 조직의 내부적 상황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17:17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짐승의 연합세력이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역사가 계속되는 한 꽤 지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끝이 속히 이를 것입니다. 다니엘 7:26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재림 전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심판하실 시간은 2300주야가 끝나는 때라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때가 벌써 1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의 안목으로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안목에는 순간일 수 있지요. 아직도 이 바벨론 세력은 온 나라 위에 영향력을 최대한 미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연구한 대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를 통하여 짐승을 위한 우상이 만들어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이 있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 되고 이 기별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되는 것이지요. 바벨론이 되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짐승과 그 연합세력에 포함되고 어린양과 전쟁하다가 멸절하게 되는 것이지요.

9. 예,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결론은 13장부터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말이네요. 12장도 역시 연결이 되는군요. 남은 자손은 12장에 있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쟁에 대한 계시는 계시록의 모든 장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군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

곱 나팔, 그리고 짐승들의 등장 등등 모든 것이 결국에 가서 아마겟돈으로 집결하는 루시퍼의 세상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성경의 바른 진리를 따라 신앙 생활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분별해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말씀해주시니 좋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되 성경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전통이나 신학이 아닌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특히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다니엘서나 요한 계시록을 연구할 때에는 예언된 말씀의 본문을 잘 살피면서 그것이 역사에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었는지를 숙고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요13:19)고 하셨습니다. 예언을 연구하고 깨달을 때에 성경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책이며 이 예언을 주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모르면 믿음이 파선한다고 가르쳐주셨지요. 오래 전에 인용한 말씀인데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딤펴전1:18.19]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는 믿음은 파선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착한 양심도 버리게 된다고 했지요. 두려운 경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또 애청자들께서도 예언의 지도를 받아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10. 예, 목사님, 이제 다음 시간에 18장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게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계시록을 여기까지 풀어올 수 있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올바르게 깨닫고 증거하게 하시고 애청자들도 바르게 깨달아서 예언의 지도를 받은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생활하도록 이끌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